

# 文館詞林的 實體

黃 渭 周

## 《目 次》

- |                  |                    |
|------------------|--------------------|
| 1. 머리 말          | 1) 原本 文館詞林的 規模     |
| 2. 編纂者 許敬宗과 傳來過程 | 2) 現存本에 수록된 作品의 實狀 |
| 1) 編纂者 許敬宗       | 3) 收錄作品의 一般的 特徵    |
| 2) 文館詞林의 傳來過程    | 4. 結 論             |
| 3. 文館詞林의 內容과 特徵  |                    |

## 1. 머리 말

舊唐書 許敬宗 列傳에 의하면 허경종이 文館詞林을 비롯한 <五代史> <晉書> <文思博要> <姓氏錄> <新禮> 등의 편찬을 주관하였다고 하였다.<sup>1)</sup> 그리고 新唐書 藝文志에는 허경종의 文館詞林 文人傳 100권이 있다고 했으며,<sup>2)</sup> 許敬宗과 劉伯宗이 文館詞林 1000권을 수찬하였다<sup>3)</sup>고 하였다. 또 宋나라 王溥의 <唐會要>에는 당 고종 즉위10년, AD. 658년 10월 2일에 許敬宗이 文館詞林 1000권을 修撰하여 올렸다고 했으며,<sup>4)</sup> 現存 殘本 文館詞林의 속표지에도 中書令 太子賓客 監修國史 弘文 學士 上柱國 高陽郡開國公 臣許敬宗等 奉勅撰 이라고 해 놓았다. 위와 같은 典據를 참고해 볼 때 우리는 唐 高宗 即位 10년 (AD.658)에 許敬宗 등이 조정의 칙명을 받들어 文館詞林이란 1000권 거질의 官撰 詩文叢書를 편찬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文館詞林은 文選 이후 중국에서 편찬된 최초의 가장 방대한 시문총집으로서 문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할만한 책이라고 할 것이다.

文館詞林은 편찬 직후 곧바로 우리나라에도 입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舊唐書 列傳 新

1) 舊唐書, 列傳32, 許敬宗.

“初高祖太宗兩朝貴錄 其敬宗所修者 頗多詳直 敬宗又慨以已愛憎 曲事剛改 論者元之然自貞觀以來 朝廷所修 五代史及晉書 東殿新書 西城圖志 文思博要 文館詞林 果壁 瑤山玉彩 姓氏錄 新禮 皆總知其事 前後賞賚 不可勝記”

2) 新唐書, 藝文志2, 雜傳記類, p.1458.

“許敬宗 文館詞林 文人傳 一百卷”

3) 新唐書, 藝文志4, 叢集類, p.1621.

“文館詞林 一千卷 許敬宗 劉伯宗等撰”

4) 工溥, 唐會要, 阮元的 四庫未收書目提要 文館詞林四卷提要에서 再引用.

“顯慶三年十月二日 許敬宗修文館詞林一千卷 上之”

羅條에는 “開耀 元년에 金法敏(문무왕)이 죽고 그 아들 金政明(신문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垂拱2년에 金政明이 사신을 보내어 朝會하고 이를 계기로 表文을 올려 唐禮 1부와 雜文章을 요청하였다. 則天武后가 해당 관서에 명령하여 吉凶要禮의 요긴한 禮法을 베끼게 하고 아울러 文館詞林 중에서 規戒가 될만한 글(詞涉規戒)을 가려 오십권을 만들어 하사하였다.”<sup>5)</sup>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곧 文館詞林이 편찬된 뒤 28년만인 당나라 측천무후 2년, 즉 신라 신문왕 6년(AD.686)에 이 책의 일부가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신라에 보급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송나라 王溥의 <王海>, 王欽若 등이 편찬한 <冊府元龜>, 阮元的 <四庫未收書目提要> 등 중국쪽의 다양한 전적에 두루 나타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6년조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들어가 예기와 문장을 요청하니 측천무후가 해당관서에 명령하여 吉凶要禮의 요긴한 예법(吉凶要禮)을 베끼고 아울러 文館詞林 중에서 규계가 될만한 글(詞涉規戒)을 가려 오십권을 만들어 하사하였다”<sup>6)</sup>고 하여 중국쪽 기록들과 거의 동일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 신문왕 6년 6월 10일에 文館詞林의 일부가 국내에 반입되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 즈음에 이미 일본에 이 책의 完帙이 전래되었다는 楊守敬의 학설과, 이 당시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신라가 일본 보다 훨씬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文館詞林 1000권 完帙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든 문선 이후 최대의 시문총집으로 보이는 文館詞林은 그 편찬 직후에 곧 바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이 분명하며, 그 만큼 당시 한문학계에 끼친 영향도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한 南北朝時代 초기로서 한문학사상 주목할만한 변화가 야기되던 때이다. 宿衛學生 遣唐遊學生 등을 통해 唐나라와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국가의 각종 文筆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翰林臺, 崇文臺, 尚書司 등 전에 볼 수 없던 文翰專擔機構가 왕의 近侍機構로 설치되었으며, 한문학적 능력을 우선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讀書三品科制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漢代 五經體系의 틀을 벗어난 唐九經이 새로운 讀書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한문학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되는 남북국시대 초기에 文館詞林(詞涉規戒)이란 새로운 시문총집을 반입하여 읽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며, 이 시대 한문학계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文館詞林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다. 그리고 이 책이 지닌 문학적 의의나 당시 국내 한문학계에의 영향 정도 등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

5) 舊唐書, 列傳149, 東夷, 新羅.

“法敏 以開耀元年卒 其子政明嗣位 垂拱二年 政明遣使來朝 因上表 請唐禮一部 并雜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戒者 勅成五十卷 賜之”

6)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神文王6年, 春正月.

“遣使人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戒者 勅成五十卷 賜之”

다. 다만 일본인 林衡과 三只園, 중국인 楊守敬 張鈞衡 등이 이 책의 殘本을 부분적으로 찾아 모아 간행한 적이 있으며, 그들이 간행본의 전후에 첨기한 序文과 跋文이 文館詞林의 전래과정과 현존본의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들이다.<sup>7)</sup> 이와 같이 文館詞林이 그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소홀하게 되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미 송나라 초기에 거의 대부분이 상실되었고, 우리나라 現存 文獻에서는 전혀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일본에 극소수의 殘本이 전해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중국 유학생을 통해 適園叢書本 文館詞林 24권과 佚存叢書 및 古逸叢書本 文館詞林 18권을 입수하였다.<sup>8)</sup>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재까지 발굴된 잔존 文館詞林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 책의 편저자 許敬宗, 이 책이 오늘날까지 전래되어 온 과정 및 現存本의 現況, 現存本에 수록된 작품의 종류와 특징 등을 다양하게 검증해 보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이 책이 국내에 搬入됨으로 해서 惹起되었을 법한 南北國時代 漢文學界에의 영향 정도와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編纂者 許敬宗과 傳來過程

### 1) 編纂者 許敬宗

文館詞林의 편찬자 許敬宗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다. 다만 舊唐書 列傳32와 新唐書 列傳148 姦臣上에 許敬宗의 열전이 立傳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데, 그가 전혀 학계에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란 점을 감안하여 우선 兩唐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隋文帝12年(592年)에 隋나라 禮部侍郎(新唐書;給事中) 許善心的 아들로 출생하였다. 字는 延族이며 杭州 新城人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대단히 잘 지었다.

7) 林 衡;古文館詞林後  
 三只園;經籍訪古志의 文館詞林零本10卷條  
 楊守敬;古逸叢;古本 文館詞林跋文  
 楊守敬;適園叢;古本 文館詞林序文  
 阮 元;四庫未收;古目提要의 文館詞林4卷提要  
 張鈞衡;適園叢;古本 文館詞林跋文

8) 이 책은 필자가 수년전부터 일본인 林衡과 중국인 楊守敬 등에 의해 일차 정리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직접 언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우연히 대만대학에 유학중인 安贊淳氏와 연락이 닿아 현재 대만대학에 소장된 두 편본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책 입수에 협조해 준 安贊淳氏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 (2) 隋揚帝 大業年間(605~616, 許敬宗 14~25歲)에 秀才에 응시 합격하여 淮陽郡의 司法佐를 지냈으며, 곧 이어 謁者臺에 근무하면서 奏通事舍人事의 일을 맡아서 하였다.
- (3) 江都의 亂離 때 아버지 許善心이 宇文化及에게 살해되자 고향을 떠나 李密에게 의탁하였다. 李密이 元師部記室을 삼아 주었으며 魏徵과 함께 管記가 되었다.
- (4) 唐 高祖 武德(618~626, 許敬宗 27~35歲) 初에 礪州別駕에 임명되었다. 그 뒤 태종이 그 명성을 듣고 불러서 秦府學士(新唐書:文學館學士)에 임명하였다.
- (5) 唐 太宗 貞觀8年(634, 許敬宗 43歲)에 著作郎에 임명되었고 修國史를 겸직하였는데, 이것을 기뻐하여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벼슬에 나아가 지작량이 되지 못하면 門戶를 이룰 수 없다”고 자랑하였다. 곧 바로 中書舍人으로 전근되었다.
- (6) 唐 太宗 貞觀10年(636, 許敬宗 45歲)에 文德皇后가 승하하자 관리들이 상복을 입었는데, 率更令 歐陽詢의 생김새가 남달리 醜하여 못 사람들이 지목하였다. 許敬宗이 보고 크게 모욕하며 비웃다가 御使에게 탄핵을 받고 洪州都督府의 司馬로 좌천되었다. 여러 차례 전근하여 給事申에 임명되었고 修國史를 겸직하였다.
- (7) 唐 太宗 貞觀17年(643, 許敬宗 52歲)에 高祖의 武德實錄을 편수하였고, 그 공로로 高陽縣男에 봉해졌으며, 임시직으로 檢校黃門侍郎을 맡았다. 고종이 세자로 있어서 太子右庶子로 전직되었다.
- (8) 唐 太宗 貞觀19年(635, 許敬宗 54歲)에 태종이 친히 高句麗를 정벌하러 떠나고 황태자(고종)가 定州에서 監國을 하였는데, 許敬宗이 太子右庶子로 있으면서 高士廉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다. 岑文本이 죽자 황제께서 역말을 보내어 許敬宗을 本官檢校中書侍郎으로 불렀다. 太宗이 駐蹕山에서 遼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을 때 許敬宗이 御駕 앞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詔書를 草案했는데 詞彩가 매우 고와서 대단히 칭찬을 받았다. 이로 밀미암아 許敬宗이 황제의 誥書를 오로지 맡아 관장하였다. 처음에 太子 承乾이 廢出될 때 그 관속이었던 張玄素 彭狐德蔡 趙弘智 裴宣機 蕭鈞 등이 모두 관직이 삭탈되어 서민이 되어 다시 등용되지 못했는데, 許敬宗이 表文을 올려 그들이 直諫을 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 죄를 받았던 사정을 이야기 하여 그들이 다시 敍用되었다.
- (9) 唐 太宗 貞觀21年(647, 許敬宗 56歲)에 銀青光祿大夫가 되었다.
- (10) 唐 高宗 卽位21年(650, 許敬宗 59歲)에 于志寧을 대신하여 禮部尙書가 되었다. 이 때 딸을 南蠻의 酋長 悉曇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고 많은 금은보화를 받다가 有司에게 탄핵되어 鄭州 刺史로 좌천되었다.
- (11) 唐 高宗 永徽3年(652, 許敬宗 61歲)에 衛尉卿이 되었고 弘文館學士 兼 修國史의 벼슬을 받았다.
- (12) 唐 高宗 永徽6年(655, 許敬宗 44歲)에 다시 禮部尙書에 임명되었다. 고종이 황후 王氏를 폐위시키고 武昭儀를 황후로 세우고자 할 때, 대신들이 모두 直諫을 하여 임금의 뜻을 거슬렀지만 許敬宗만은 임금의 사사로운 마음을 짐작하고서 특별히 그 계획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농부가 10섬의 보리만 더 수확하여도 오히려 부인을 갈고자 하는데 천자는 그

부유함이 천하를 소유한 터라 한 황후를 갈고자 하는데 불가하다니 어찌된 것인가?”라고 하는 유훈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드디어 황후王氏를 폐위시키게 하고, 황후 집안의 관직을 삭탈하게 했으며, 太子 忠을 폐위시키고 代王을 태자로 세우게 하였다.

- (13) 唐 高宗 顯慶元年(656, 許敬宗 65歲)에 太子 賓客에 임명되었고 곧바로 侍中이 되었으며 監修國使를 지냈다.
- (14) 唐 高宗 顯慶3年(658, 許敬宗 67歲)에 封郡公으로 승진하였고, 얼마 뒤 그 아버지 許善心을 冀州刺史로 추증하였다. 고종이 長安城을 유람하면서 이 곳에 都邑했던 歷代의 工들과 昆明池를 만든 연도 등을 물었을 때 許敬宗이 대답을 잘 하니 高宗이 許敬宗에게 명하여 文館學士 具檢과 더불어 秦-漢 이래 역대 宮室의 處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해에 李義府를 대신하여 中書省이 되었다. 許敬宗은 황후를 옹립하는데 助力하였고, 황후의 罪를 틀어잡고 있으면 능히 임금을 짊어 못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황후와 관련시켜 음모를 꾸며 韓瑗 來濟 褚遂良 등을 축출하고 梁王 張孫無忌 上官儀 등을 살해하니 이에 許敬宗의 충애와 세력은 당대에 비길 곳이 없게 되었다. 이 해에 文館詞林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 (15) 唐 高宗 龍朔2年(662, 許敬宗 71歲)에 새로운 법령에 따라 右相이 되었고 光祿大夫가 되었다.
- (16) 唐 高宗 龍朔3年(663, 許敬宗 72歲)에 太子少師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監修國史를 겸직하였다.
- (17) 唐 高宗 乾封(666~667) 초 許敬宗 75歲 무렵에 許敬宗이 年老하여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하니 특명을 내려 司空 李勣과 함께 매일 아침 말을 탄 채로 궁궐문을 들어와 內省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 (18) 唐 高宗 咸亨 元年(670, 許敬宗 79歲)에 표문을 올리 물러난 것을 요청하니, 品官을 내려 용납하고 잇따라 特選의 벼슬을 더해 주었으며, 초하루와 보름날에만 朝會에 참석하고서도 俸祿을 여전히 받도록 해주었다.
- (19) 唐 高宗 咸亨3年(672, 許敬宗 81歲)에 許敬宗이 81세를 일기로 죽었다. 고종이 3일간 朝會를 폐지하고 文武百官에게 명령하여 집에 찾아가 哭을 하게 했으며 開府儀同三司 揚州大都督에 추증하고 昭陵에 부장케 하였다. 文集 80卷을 남겼고 諡號를 恭이라고 결정하였다.

위에 정리해 놓은 사실은 순전히 兩唐書에 기록된 내용을 차례대로 선별하고 상호 보완하여 번역해서 제시한 것이며 필자의 견해가 개입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기록을 검토해 보면 文館詞林의 編著者 許敬宗이란 인물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우선 문학적 재능이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다. 兩唐書에 모두 “許敬宗은 어려서부터 글짓기를 잘하였다.”(敬宗幼善屬文)고 기록하였고(1:위에 정리한 연보기사의 항목번호, 이하 동일), 14~25세 사이에 이미 秀才에 합격하였으며(2), 30대 초에는 당 태종에게 발탁되어 문학적 재능을 우선하는 文學館學士(新唐書:秦府學士)에 임명되기도 하였다(4). 그 뒤에도

줄곧 著作郎 弘文館學士 등 중요한 文翰職을 담당하였으며(5,8,11), 實錄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문헌 편찬을 주관 감독하는 修國史 監修國史的 職을 끊임없이 겸직하였다(5,6,7,11, 13,16). 그래서 52세 때는 高宗의 <武德實錄>과 太宗의 <貞觀實錄>을 편찬한 공로로 高陽縣男에 봉해지기도 하였고(7), 54세 때는 遼나라 정벌에 나선 태종을 수행하는 도중 즉석에서 초안한 詔書가 “詞彩가 고와서 대단히 칭찬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황제의 誥諭을 오로지 전달하였다”고 할 정도였다(8). 이 처럼 許敬宗은 문학적 재능이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고, 실제 문집 80여권을 남겨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관직에 있으면서도 문학과 관련된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었다.

특히 50대 이후의 許敬宗은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權臣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당 태종이 친히 고구려 정벌을 떠나고, 태자(고종)가 定州에서 監國을 하고 있을 때, 太子右庶子로 있으면서 국가의 요긴한 일을 담당하였고(8), 그 뒤 태자가 고종으로 즉위하자 곧 禮部尙書로 승진하였다(10). 또 고종이 즉위 직후 황후 王氏를 폐위시키고 武昭儀를 새 황후로 세우고자 할 때, 다른 모든 대신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합하여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하였으며, 황후 王氏와 그 아들 태자 忠을 폐위시키게 하고, 그 집안의 관직을 삭탈하게 했으며, 여기에 반대했던 梁王 張孫無忌 上官儀를 殺害하고 韓瑗 來濟 褚遂良을 축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12,14). 이 이후 許敬宗의 총애와 세력은 당대에 비길데가 없었다. 年老하다는 이유로 말을 타고 대궐문 안 內省까지 출입하게 했단지(17), 특별히 朔望에만 朝會에 참석하게 하고서도 봉록을 여전하게 주게 한 것(18), 그리고 死後에 모든 조정 중신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 곡을 하게 하고, 昭陵에 副葬하게 했던 것(19) 등이 모두 이 점을 입증하는 기록들이다. 그리고 文館詞林이 편찬된 것도 바로 이 시기, 즉 許敬宗이 67세 되던 당 고종 顯慶3年 AD.658년이었는데, 이것은 1000권이 넘는 유례없이 방대한 시문총집의 편찬이 許敬宗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許敬宗은 문학적 재능이 탁월한 당대의 세도가였지만 公人으로서의 正道와 義理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고종의 황후 왕씨 폐위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점(12,14)과 新店書에 그의 열전이 姦臣列傳으로 격하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虞世基는 許敬宗의 아버지 許善心과 더불어 다같이 宇文化及에게 살해되었다. 封德彝가 그 당시 內史舍人으로서 있어서 그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虞世基가 살해될 때 그 아들 虞世南은 엎드려 대신 벌받겠다고 하였는데 許善心が 죽을 때 그 아들 許敬宗은 춤추고 뛰면서 제살기를 구하였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실로 삼자 許敬宗은 깊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封德彝의 열전을 立傳한 때 그의 죄악을 대단히 덧붙여 기술하였다. 許敬宗

은 左監門大將軍 錢九隴에게 딸을 시집보냈는데, 그는 본래 왕실의 下人이었다. 許敬宗이 재물을 탐내어 혼인을 하고서는 곧 錢九隴을 위하여 그 門閥을 왜곡 서술하였고, 함부로 그의 공적을 덧보태어 劉文靜 長孫順德 같은 사람들과 나란히 같은 책에 올렸다. 許敬宗이 아들을 위하여 尉遲寶琳의 손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고 많은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는 尉遲寶琳의 아버지 敬德의 傳을 立傳함에 미처서 많은 과오와 허물을 숨겨주고 기술하지 않았으며, 태종이 長孫武周에게 지어 하사해 준 威鳳賦를 敬德에게 하사했던 것으로 고치기도 하였다. 白州사람 龐孝泰는 南蠻族 酋長의 평범한 인물로서 군병을 거느리고 고구려 정벌에 따라 갔었는데, 고구려에서 그가 나약한 인물임을 알고 습격해서 격과하였다. 그런데 許敬宗은 龐孝泰의 뇌물을 받고 칭찬하여 그가 자주 賊徒들을 격과하여 수만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고 했으며, 중국 장수 중 날랜 사람은 蘇定方과 龐孝泰 뿐이요 曹繼叔과 劉伯英 같은 이들로 모두 그에게 훨씬 못미친다고 하였다. 許敬宗이 (역사서술에서) 근거없이 美化시키고 나쁜 것을 숨겨주고 하기를 이와같이 하였다.”<sup>9)</sup>

위의 예문은 허경종이 재물에 대한 탐욕심이 대단하였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 변조했던 사정을 낱낱이 지적해 주고 있다. 그리고 “허경종은 집을 화려하고 분에 넘게 지었으며, 심지어 連樓를 지어 놓고 여러 妓女들로 하여금 그 위에서 말을 달리게 하였고, 술을 배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스스로 즐겼다.”<sup>10)</sup>고 하여 그의 분에 넘는 화려한 생활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또 “허경종은 女色을 좋아하며 절제가 없었다. 아내 裴氏가 일찍 죽고 배씨의 侍婢가 姿色이 있어서 허경종이 사랑하여 繼室로 삼았으며, 임시로 姓을 虞氏라고 하였다. 敬宗의 아들 昂이 본래 그 侍婢와 情을 통해 온 터라 계속 정을 통하니 許敬宗이 성을 내어 虞氏를 쫓아내고 아들 昂이 不孝한다는 죄를 더하여 임금께 아뢰어 嶺外로 유배보낼 것을 요청하였다.”<sup>11)</sup>고 하여 한 여인을 두고 아들과 다투어 아들을 귀양보내게 할 만큼 불명예스러운 行脚을 남겼음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사후에 袁思古 王福峙 등은 “名聲과 實相이 어긋난 경우에 繆라고 한다”는 論法

9) 舊唐書, 列傳32, 許敬宗, 중간부분

“初 虞世基 與敬宗父善心 同爲宇文化及所害 封德彝 時爲內史舍人 備見其事 因謂人曰 世基被誅 世南爾爾 而謂代 善心之死 敬宗舞蹈以求生 人以爲口實 敬宗深銜之 及爲德彝立傳 盛加其罪惡 敬宗嫁女 與左監門大將軍錢九隴 本皇家隸人 敬一宗貪財與婚 乃爲九隴 曲敘門閥 妄加功績 并升與劉文靜 長孫順德同卷 敬宗爲子娶尉遲寶琳孫女爲妻 多得賂遺 及作寶琳父敬德傳 悉爲隱諸過咎 太宗作威鳳賦 以賜長孫無忌 敬宗改云賜敬德 白州人龐孝泰 鬻酋凡品 率兵從征高麗 賊知其懦 襲破之 敬宗又納其貨 稱孝泰頌破賊徒 斬獲數萬 漢將駟健者 唯蘇定方與龐孝泰耳 曹繼叔 劉伯英 皆出其下”

10) 新唐書, 列傳148, 姦臣上, 許敬宗.

“敬宗營第舍 華僭 至造連樓 使諸妓走馬其上 縱酒奏樂自娛”

11) 舊唐書, 列傳32, 許敬宗.

“敬宗好色無度 其長子昂 頗有才藻 歷位太子舍人 母裴氏早卒 裴侍婢有姿色 敬宗嬖之 以爲繼室 假姓虞氏 昂素與通 恣之不絕 敬宗怒黜虞氏 加昂以不孝 奏請流于嶺外”

12) 舊唐書, 列傳32, 許敬宗.

“太常將定論 博士袁思古議曰 敬宗位以才昇 歷居清級 然棄長子於荒微 嫁少女於夷落 聞詩學禮 事絕於趨庭 納采問名 唯聞於鬻貨 白圭斯玷 有累清玷 易名之典 須憑實行 按論法 名與實爽曰繆 論爲繆”

에 따라 그의 諡號를 繆라고 追贈하고자 하였으며,<sup>12)</sup> 이 때문에 조정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3)</sup> 어쨌든 허경중은 문학적 재능이 대단히 탁월한 당대의 權臣으로서, 개인적으로 탐욕심이 대단한 인물이었고, 가정적으로 자신의 욕구 때문에 아들을 귀양보내고 딸을 오랑캐에게 시집보낸 비정한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사사로운 情理와 賂物如何에 따라 역사 기록을 왜곡시킨 不道德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그의 부도덕한 삶이 그가 주관해서 편찬한 文館詞林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 가치를 半減시켜 文人 學者들로 부터 외면당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이 이 책이 편찬된지 얼마 되지 않은 송나라 초기에 이미 대부분 喪失되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 2) 文館詞林의 傳來過程

文館詞林이 唐 高宗 卽位10年 AD.658年 10月 2日에 편찬 완료되었고 곧 바로 우리나라에도 그 일부가 입수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입수된 것과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도 전래되었다. 일본인 林衡은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문관사립 권662가 당나라 則天武后 때의 字樣을 사용하였고, 또 권695 뒤에 “校書殿에서 弘仁14년(AD.824)에 필사하여 冷泉院의 서적으로 삼았다.”<sup>14)</sup>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책이 則天武后 年間이나 적어도 弘仁年間(당나라 穆宗 長慶3년, AD. 823) 이전에 일본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중국인 楊守敬도 현재 일본에 殘存해 있는 文館詞林 권665 뒤에 儀鳳2년(당 高宗 즉위29년, AD.677)에 古手 李神福이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글자의 모양도 則天武后 이전 시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일본인 藤原佐世의 <見在書目>이란 저서에 ‘文館詞林一千卷’이란 기록이 있다는 점, 현존본 각 권마다의 文類가 繁多하여 모두다 規戒之辭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책이 則天武后 보다 앞선 시기에 일본에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신라를 통해 전래된 것이 아니라 1000권의 완질이 모두 중국에서 직접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sup> 이와같은 林衡과 楊守敬의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文館詞林 잔본이 가장 많이 남아 있

13) 이 논란은 허경중의 손자 許彦伯이 조정에서 조부 허경중에게 繆라는 시호를 내린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단되었으며, 尙書省의 5품 이상 관리들이 모두 이 논의에 참여한 만큼 문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楊思敬의 중재로 既過能改曰恭이라고 한다는 諡法에 따라 恭이라고 시호를 정정해서 확정하였다. 이와같은 사정은 구당서 허경중 열전의 끝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4) 林 衡, 위의 글.

“其第六百六十二卷 多用則天制字 豈以武周時之本而傳焉與……企第六百九十五卷末記云 校書殿 爲弘仁十四年歲次癸卯二月 爲冷泉院書 今以千支推之 正當唐穆宗長慶三年 則其傳來之久 亦可見矣”

15) 楊守敬, 古逸叢書本 文館詞林跋. 이 글은 納園叢書本 文館詞林 뒷편에 수록된 것을 재인용 하였음. “今攷藤原佐世 見在書目 有文館詞林一千卷 又嶺南倭名類聚鈔序云 文館詞林一百帙 則彼國所得 實爲足本 今校其所存 各卷文類繁多 不盡規戒之辭 且第六百六十五卷後 有儀鳳二年 書手李神福寫 字樣是更在重拱以前 其非節之本 無疑”



고, 이 학설이 현전하는 文館詞林 册板과 거기에 첨기된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그러나 이 책은 중국 자체에서부터 편찬된지 약 400년만인 宋나라 眞宗年間에 이미 거의 대부분 逸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을 보자.

“옛날에 승려 龐然이 송나라에 들어가 이야기가 일본에 전해오는 책 가운데 문관사람이란 것이 있다는데 미치자 당시 중국인들은 이 책의 제목도 알지 못했고 館字를 觀字로 생각하기도 했으며 잘못 일본인이 저술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 이 책이 송나라 초기에 이미 失傳되었음을 알겠다”<sup>17)</sup>

위의 예문은 송나라 眞宗年間에 黃鑑이란 사람이 楊億(황감의 고향 선배이자 스승)의 談話를 모아 편찬한 <談苑>이란 책에 나오는 것이며, 그 뒤 <宋朝類苑>과 楊守敬의 古逸叢書本 문관사람에까지 두루 인용된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 승려 龐然이 송나라에 들어가 文士들과 交遊하는 가운데 문관사람이란 책이 일본에 전해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송나라 문사들이 이 책의 제목도 알지 못했으며, 文館詞林的 館字를 觀字로 잘못 알기도 하였고, 심지어 일본인의 저술로 잘못 알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그 만큼 文館詞林이 송나라 문사들 사이에 이미 잊혀져 버렸거나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뜻이다. 또 林衡의 文館詞林跋文과 森只園의 經籍訪古志本 文館詞林序文, 楊守敬의 古逸叢書本 文館詞林跋文, 張鈞衡의 適園叢書本 文館詞林跋文 등 문관사람과 관련된 후대의 각종 전적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논지를 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송사 예문지에 문관사람 詩 1卷만 기록해 두고 그 전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대개 당시에 이미 散逸되어 남아 있는 것이 겨우 1권 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책이 호한하고 방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詩만 겨우 한권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니, 1字를 잘못 썼거나 그렇지 않다면 1字의 上下에 빠진 글자가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없다.”<sup>18)</sup>

“내가 살펴 보건데 송나라 太平興國 年間(송 태종1년 AD.976~8년, AD.983)에 文苑英華를 편집

16) 舊唐書 列傳149 上 日本條에 보면 “開元初 又遣使來朝 因請儒士授經 詔四門助教趙玄默 就鴻臚寺教之 ……所得錫賚 盡市文籍 汎海而還”이라고 하여 이 당시 일본에서도 중국쪽 문헌전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수의 문헌전적을 구입해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사 역시 이 책이 일본에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겠다.

17) 森只園, 經籍訪古志, 文館詞林零本十卷에 收錄된 기사내용 중에서 재인용.  
“昔時僧龐然入宋 語及我之書內有文館詞林 時人不知其目 以館作觀 且誤謂皇朝人所著(事見宋朝類苑 引楊億談苑)”

18) 林 衡, 古文館詞林後.  
“宋史藝文志 錄文館詞林詩一卷 而不錄其全書 蓋當時已散佚 所存止一卷耳 但以其書之浩博 而詩僅一卷 是則可怪 一字寫誤 不者 上下有脫字 亦未可知”

하면서 수록 망라하기를 지극히 방대하게 했는데도 이 책은 채록되지 못했다. 그래서 崇文叢目에는 겨우 문관사림 彈事 4卷만 실었고, 송사 예문지에도 文館詞林 시1권만 실어 놓았으니, 이런 것들은 모두 散逸된 나머지의 것이고 그 원본의 책은 이미 北宋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바가 되었다.”<sup>19)</sup>

이 글은 林衡의 逸存叢書本 書文館詞林後란 글과 楊守敬의 古逸叢書本 文館詞林跋文에서 관련 부분을 摘示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송사 예문지에 이미 文館詞林이 完帙이 아닌 詩1卷만 수록되어 있고, 송나라 太宗年間에 편찬된 <文苑英華>가 지극히 방대한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文館詞林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崇文叢目> 같은 책에도 文館詞林 彈事 4卷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이미 송나라 이전에 거의 대부분 상실되어 北宋人 자신들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舊唐書>와 <新唐書>, 王溥의 <唐會要>, 王欽若 등의 <冊府元龜>, 王堯臣 등의 <崇文叢目>, 王應麟의 <玉海> 등 문관사림과 관련된 각종 전적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관사림은 중국 자체에서 이미 송나라 이전에 거의 대부분 상실된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가 정밀하고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만 三國史記 新羅本紀 神文王 6年條에 문관사림의 일부를 반입해 왔다는 기록이 있을 뿐,<sup>20)</sup> 그 뒤 1000권 完帙을 다 搬入했는지, 이 책을 들여와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문인들 간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현재 한권의 殘卷도 남아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文館詞林이 이렇게 일찍 상실되게 된 까닭은 분명치 않다. 작자 許敬宗이 姦臣列傳에 편입될 만큼 후대의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義氣를 숭상하는 문인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일 수도 있고, 文集 편찬이 본격화되고 <唐音遺香>을 비롯한 각종 專門 詩全集이 속출함으로써 文館詞林과 같은 총서적 성격의 작품집의 가치가 반감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森只園의 <經籍訪古志>에 의하면

“(문관사림 권346 뒤에 첨기된) 발문에 의거해서 고찰해 보건데, 弘仁年間에 勅命을 받들어 이 책을 베껴 써서 冷然院에 보관하였는데, 冷然院은 곧 왕실도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貞觀17년에 冷然院에 불이 나서 소장 도서와 문서가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이 사실은 三代實錄에 보인다. 그뒤 冷然院의 然字에 불 火字가 들어 있다고 하여 이것을 泉字(冷泉院)로 고쳤다. 이 책이

19) 楊守敬, 古逸叢書本, 文館詞林跋.

“余案 宋太平興國中 輯文苑英華 收羅至博 而此書不見采錄 故崇文叢目 僅載文館詞林彈事四卷 宋史藝文志 僅載文館詞林詩一卷 是皆零殘之遺 若其全書 則已爲北宋人所不見”

20)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神文王6年, 春正月.

화재를 면하고 겨우 남아 있게 된 것은 생각컨데 당시 上皇을 따라 嵯峨離宮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인 듯하니, 그래서 이 책 끝 冷然 嵯峨의 두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을 것이다.<sup>21)</sup>

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文館詞林을 왕실도서로 소장해 왔고, 임금이 離宮에 행차할 때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옮겨 둘 만큼 소중하게 보관해 왔음을 시사해 준다. 그래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과 우리나라엔 전혀 전해지지 않는 文館詞林이 일본에는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란과 화재를 겪으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각지에 흩어진 채로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유일하게 산재해 있는 문관사림을 처음으로 책으로 정리하여 간행한 사람은 일본인 林銜이다. 임형은 일본 각지의 寺刹과 好事家들이 소장하고 있던 문관사림을 두루 찾아 모아 권662, 권664, 권668, 권695 등 4권을 정리해 냈으며, 이것을 1800년 <佚存叢書>에 넣어 간행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孫星衍이 <續古文苑>에 文館詞林 4권을 수록하였고 阮元이 <四庫未收書目提要>에 文館詞林 4卷提要를 수록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임형의 일존 총서본 文館詞林 4권을 토대로 한 것이다.<sup>22)</sup> 그 뒤 森只園 澁江抽齋 등이 <經籍訪古志>를 편찬하면서 임형이 발굴 정리한 4권을 포함한 文館詞林 10권의 소장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소장처에 대한 기록일 뿐 책으로 정리 간행된 것은 아니다.

임형 이후 文館詞林을 보다 폭넓게 조사하여 정리한 사람은 중국인 楊守敬이다. 양수경은 1884년 사신 黎庶昌을 따라 일본에 가 머무르는 동안 文館詞林의 발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 임형이 발굴해 낸 4권 이외에 권156, 권157, 권158, 권347, 권452, 권453, 권457, 권459, 권666, 권670, 권691, 권699 등 13권의 整卷과 권665 殘卷 및 文館詞林 30권의 소장처를 밝혀 놓은 小林辰의 文館詞林 목록 1부를 찾아 내었다.<sup>23)</sup> 그리고 黎庶昌의 협조를 받아 이것을 <古佚叢書> 속에 印入하였던 것이다. 그 직후 양수경은 다시 町田久成으로부터 당시까지 발굴되지 않은 淺草文庫 소장 文館詞林 권152, 권346, 권414, 권665, 권669

21) 森只園의 經籍訪古志本 文館詞林零本十卷의 수록 기사 중에서 재인용.

“依跋文攷之 弘仁中 奉勅書寫 置之冷然院 冷然院 乃儲御書處 貞觀十七年 罹災秘閣 收藏圖書文書 悉爲灰燼 事見三代實錄 後以然字從火 改用泉字 而是書得免災僅存者 意當時從上皇在嵯峨離宮 故未捺冷然嵯峨二印”

22) 위의 책

“文化中 述齋林君 得此書零本 收於佚存叢書中 近日孫星衍續古文苑 阮元四庫未收書目提要 皆援引之 則已播西土 但其所傳 僅四卷 不及其他 是亦可憾耳”

23) 楊守敬, 古逸叢書本 文館詞林 跋文.

“先是日本文化中 林述齋刻佚存叢書 收文館詞林四卷 中土將爲秘笈 及余東來 見森立之訪古志所載 又有益出此四卷之外者六卷 因據以蹤跡之 則又溢出於訪古志之外者九卷 除林氏已刻之四卷及第三百四十八卷之馬融廣成頌 除十四卷 今星使黎公 盡以付之梓人 其大字疏行者 係小島尚質從原本摹出 其小字密行者 則傳鈔本也……此十四卷中 雖略有見於史, 胡文選及本集者 而其不傳者十居八九 可不謂稀世珍乎 刻成後 柏木政矩復驗目錄一紙 據稱是嘉永年間小林辰所訪通計其國 尚存三十卷 至今有存於淺草文庫者 有存於西京大覺寺者 皆不易傳錄 故今附刻其目 以俟後之人焉”

등 5권을 입수하였는데, 이것을 직접 <太平御覽> <藝文類聚> <初學記> 및 각종 史傳과 대비 교감한 뒤 같은 집안의 楊葆初로 하여금 精寫해서 판각하게 하였다.<sup>24)</sup> 이처럼 임형 이후 양수경이 18권을 더 찾아냄으로써 文館詞林은 전체 22권이 발굴 간행된 셈이 되었다.

그 뒤 중국인 董康이 다시 일본의 京에서 文館詞林 두루마리 21軸을 입수하였는데, 이 두루마리를 검토한 결과 이미 판각된 22권 이외에 권160 整卷 1권과 다수의 殘卷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25)</sup> 이렇게 발굴 정리된 모든 文館詞林을 1914년 張鈞衡이 整卷 23卷 殘簡2篇으로 종합하여 <適園叢書>에 편입시킴으로써 文館詞 발굴 정리 작업은 일차적으로 일단락 되었다. 물론 이 이후에도 1924년 동강이 淺草文庫本 문관사림 17권을 영인하여 유포한 바가 있고, 1936년 尙務印書 에서도 <叢書集成>을 편찬하면서 문관사림 17권을 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적원총서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현재까지 발굴된 문관사림 중에서는 적원총서본이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현재까지 발굴된 문관사림 23권의 내역과 小林辰巳가 정리한 문관사림 30권의 목록 및 소장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발굴된 문관사림 23권의 내역>

- 임형이 정리한 것: 662, 664, 668, 695
- 양수경이 정리한 것: 152, 156, 157, 158, 346, 347, 414, 452, 459, 665, 667, 669, 670, 691, 699,
- 동강이 정리한 것: 160, 기타 다수의 잔간

24) 適園叢書 앞에 附記된 楊守敬의 文館詞林의 序文

“及古逸叢書已印成 守敬差滿將歸 晤博物館書記官町田久成 言淺草文庫所藏 渠能爲我傳錄之 乃得一百五十二 三百四十六 三百四十四 六百六十五 六百六十九 共計五卷……其書屢經鈔寫 論誤頗多 乃携之 凡見於史傳 太平御覽 藝文類聚 初學記等書所引者 悉爲比勘 擇善而從 其無可參證者 闕焉 吾宗葆初大令 見而愛之 竝爲是正文字 精寫而刻之”

25) 張鈞衡, 適園叢書本 文館詞林 跋文.

“董授經大理 在日本西京 借得二十一軸 除已刻外 又得卷一百六十一整卷 卷三百四十八殘卷 卷六百六十四 卽佚存叢書之後半卷殘詩四首 與楊氏單刻卷一百五十六目合”

<小林辰의 文官詞林 所藏處 目錄>

권수	소 장 처	권수	소 장 처	권수	소 장 처
152	대각사, 천초문고	452	령목진년, 목촌관재	665	대각사, 목촌관재
156	대각사, 천초문고	453	대각사, 천초문고	666	고야산
157	대각사, 목촌관재	455	소재미상	667	원본의 소재미상
158	백목탐고(권수)	457	대각사, 목촌관재	668	백목탐고
	령목진년(권미)	459	령목진년(권수), 소도	669	대각사, 목촌관재
160	대각사		(권미)양본을 합하여	670	대각사, 천초문고
338	소재미상		완질,	691	대각사, 령목진년, 천초문고
346	대각사, 목촌관재		대각사, 목촌관재		
347	대각사	507	백목탐고	693	소재미상
348	대각사(권수)	655	소재미상	695	승복사, 목촌관재
	승복사(권미)	662	백목탐고	699	대각사, 령목진년
414	대각사, 목촌관재	664	백목탐고	권명미상산간	대각사

- \* 大覺寺…西京 大覺寺 影抄本
- \* 木村觀齋…木村觀齋所藏 元祿縮寫本
- \* 領木眞年…領木眞年所藏 影抄本
- \* 小島…小島所藏 影抄本

- \* 淺草文庫…淺草文庫 縮寫本
- \* 柏木探古…柏木探古所藏 原本
- \* 勝福寺…攝津國 勝福寺 所藏
- \* 高野山…高野山 古寺所藏 原本

## 2. 文館詞林의 內容과 特徵

### 1) 原本 文館詞林의 規模

현재까지 발굴 정리된 문관사림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 23권 정도이다. 이것은 전체 文館詞林 1000권의 2.3%에 불과하다. 그러면 원본 文館詞林 1000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대체로 어떤 작품을 수록하고 있을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현존 文館詞林의 약 40배수 가량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현존본이 本板 약600面 정도이고, 그나마 각 권마다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본 文館詞林은 어렵잡아 2만5천 내지 3만면의 분량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분량이며, 이 당시까지 거의 유일한 문학교과서였던 <文選>이 30권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과 견주어 보면 그 규모의 방대함을 실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싶이 원본 문선은 30권에 불과했으며 당나라 때 李善이 注를 달면서 60권으로 확대하였다. 그 뒤 呂延齊 劉良 張統 呂向 李周翰 등 다섯 사람이 五臣注를 달면서 일시

30권본으로 환원시켰으나, 이것을 후대에 李善의 注와 합쳐 六臣注로 만들면서 다시 60권으로 정착시켰다.<sup>26)</sup> 따라서 송대 이래 가장 보편적으로 읽혀진 문선은 곧 六臣注本이라고 하겠는데, 이 책은 전체가 목판 3300면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전체의 약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주석부분을 뺀 경우 문선에 수록된 순수한 작품은 목판 약 1000 내지 1200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책판의 크기에 있어서도 文館詞林이 한 면에 1행 23자씩 11행을 판각한데 비하여 문선은 1행 17자씩 10행을 판각하여 그 규모가 훨씬 작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볼 때 文館詞林은 현존 문선 보다 약 30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만큼 수록된 작품의 양이 많고 종류도 다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현재 그 전체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남았는 文館詞林 23권이 특정 한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152부터 권69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각 권마다 독특한 목차기록을 수록하고 있어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현재 발굴된 것보다는 좀더 충실한 내용 개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선 각 권의 첫머리에 수록된 목차 기록을 예시해 보자.

卷數	樣式	下位分類	卷數	樣式	下位分類	卷數	樣式	下位分類
권152	詩12	人部 9, 贈答1	권452	碑32	百官22, 將軍2	권667	詔37	赦宥 3, ?
권156	詩16	人部13, 贈答5	권453	碑33	百官23, 將軍3	권668	詔38	赦宥 4, ?
권157	詩17	人部14, 贈答6	권457	碑37	百官27, 都督1	권669	詔39	赦宥 5, ?
권158	詩18	人部15, 贈答7	권459	碑39	百官29, 都督3	권670	詔40	赦宥 6, ?
권160	詩20	禮部 2, 釋尊下	권662	詔32	征伐 , ?	권691	勅 ?	? , ?
권346	頌16	禮部 5, 巡行	권664	詔34	撫邊 , ?	권695	令下	移都 毀廢 등
권347	頌17	往伐 1, ?	권665	詔35	赦宥 1, ?	권699	教 4	恤亡 顯節 등
권414	七4	? , ?	권666	詔36	赦宥 2, ?			

위의 표를 보면 우선 文館詞林 1000권이 문학양식에 따라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고, 그 양식별 분류 아래 특정 용도에 따른 下位分類가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분류 내용에 번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관찰할 경우 文館詞林의 면모를 현재 보다 좀 더 폭넓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예컨대 권152가 詩12에 해당하니 현재 발굴되지 않은 권141부터 권151까지 11권은 詩1에서 詩11에 해당하는 작품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권452가 碑32에 해당하니 현재 발굴되지 않은 권421부터 권451까지의 31권은 碑1에서 碑31에 해당하는 작품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따

26) 金學注：文選解題，正文社 影印本 文選，첫부분，pp.1~14.

저서 정리해 보면 권141에서 160까지 20권은 詩, 권331에서 권347까지 17권은 頌, 권411에서 권414까지 4권은 七, 권421에서 권459까지 39권은 碑, 권631에서 권670까지 40권은 詔, 권691은 勅, 권695는 令, 권696에서 권699까지 4권은 教라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新唐書 藝文志 雜傳記類에 許敬宗의 文館詞林 文人傳 100권이 있다고 하였고,<sup>27)</sup> 王溥의 <唐會要>와역시 新唐書 藝文志4에 崔玄暉가 文館詞林 策20권에 訓注를 더하였다고 하였으며,<sup>28)</sup> 王堯臣의 <崇文總目>에는 文館詞林 彈事4권이 있다고 기록하였다.<sup>29)</sup> 그렇다면 文館詞林 1000권 중에는 위에 밝혀진 것 외에도 文人傳 100권과 策20권 彈事4권이 포괄되었던게 분명하다. 또 현재 殘簡으로 남아 있는 글 중에 表文이 1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 속에 상당량의 표문이 수록되었음도 동시에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혀진 文館詞林의 수록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該 當 卷 數	分 量	樣 式	該 當 卷 數	分 量	樣 式	該 當 卷 數	分 量	樣 式
권141~160	20권	詩	권631~670	40권	詔	?	100권	文人傳
권331~347	17권	頌	권691	1권	勅	?	20권	策
권411~414	4권	七	권695	1권	令	?	4권	彈事
권421~459	39권	碑	권696~699	4권	教	?	?	表

위의 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존 자료와 관련 문헌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文館詞林 분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250권이 대체로 어떤 부류의 작품양식을 수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양식별 하위분류가 대단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 자료목록에는 그 중 한 두가지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작품양식이 위에 제시된 것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책의 1/30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문헌에도 이미 37종이나 되는 다양한 文體를 포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에도 위에 밝혀진 8種 이외에 賦 騷 冊 啓 書 등 각양의 문체를 두루 수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일뿐 구체적 작품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며 현존하는 작품은 여전히 <適園叢書>에 수록된 整卷23권, 殘簡2편 정도에 불과하다.

27) 新唐書, 藝文志2, 雜傳記類, p.1458.

“許敬宗, 文館詞林 文人傳 一百卷”

28) 新唐書, 藝文志4, 總集類, p.1622.

“崔玄暉 訓注文館詞林 策二十卷”

林 衡, 書文館詞林後

“王伯厚玉海 引唐會要曰 顯慶三年十月二日 許敬宗修文館詞林一千卷 上之 崔元暉(據唐書 暉當作暉)等 訓注 今案唐書藝文志 曰文館詞林一千卷 許敬宗 劉伯宗等撰 又曰崔元暉訓注文館詞林策二十卷 乃知其書 原一千卷 而元暉所注 止其策二十卷也”

29) 楊守敬, 古逸叢書本 文館詞林 跋文.

“崇文總目 僅載文館詞林彈事四卷”

## 2) 現存本에 收錄된 作品의 實狀

현존 문관사림 23권에는 대략 詩88題 97수, 頌12題 12수, 七3題 24수, 碑17題 17수, 詔197題 208수, 勅30題 30수, 令34題 35수, 敎37題 37수 表1題 1수 정도가 실려 있는데 이 자료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152, 詩12, 人部9, 贈答1, 4言, 親屬贈答.

(西晉) 潘岳;贈王冑1수. 潘尼;獻長安君安仁1수, 贈司空掾安仁1수. 左思;悼離贈妹2수, 陸機弟清河雲 1수并序. 陸雲;答兄機 1수.(宋) 陶潛;贈長沙公族祖 1수并序. 謝靈運;贈從弟弘元 1수, 答中書 1수, 贈從弟弘元時爲中軍功曹住京 1수, 贈安成 1수,(南齊) 王寂;第五兄揖到太傅竟陵王屬奉 1수, 王融;贈族叔衛軍儉 1수,(梁) 昭明太子;示徐州弟 1수, 王揖;在齊答弟寂 1수, /// 夫婦贈答(後漢) 秦嘉;贈婦 1수,(西晉) 孫楚;贈婦胡母夫人別1수

권156, 詩16, 人部13, 贈答5, 4言, 雜贈答.

(西晉) 歐陽建;答石崇贈 1수, 摯虞;答伏中武 1수, 贈褚武良以尙書出爲安東 1수, 贈李叔龍以尙書郎遷建平太守 1수, 鄭豐;答陸士龍 4수并序, 張翰;贈張弋陽 1수, 陸機;答賈謐 1수 并序, 贈顧令文爲宜春令 1수, 贈武昌太守夏少明 1수, 孫承;贈陸士龍 1수, 陸雲;答孫承 1수, 贈鄭曼季 4수并序, 張載;贈司隸傅咸 1수

권157, 詩17, 人部14, 贈答1, 4言, 雜贈答3.

(西晉) 曹摎;贈韓德眞 1수, 贈石崇 1수, 贈王弘遠 1수, 贈歐陽建 1수, 答趙景猷 3수, 棗腆;答石崇 1수, 棗嵩;贈杜方叔 1수, 盧諶;贈荀彥將 1수, 夏靖;答陸士衡 1수,(東晉) 郭璞;答賈九州愁 1수, 與王使君 1수, 答王門子 1수, 贈溫嶠 1수, 梅陶;贈溫嶠 1수, 王胡之;贈安西庾翼 1수, 答謝安 1수, 孫綽;贈溫嶠 1수, 與庾泳 1수, 答許詢 1수, 贈謝安 1수, 謝安;與王胡之 1수, 郗超;答傅郎 1수, 羊徽;贈傅長猷傳時爲太尉主簿入爲都官郎 1수, 答北泉之 1수.

권158, 詩18, 人部15, 贈答7, 4言, 雜贈答.

(後魏) 宋欽;贈高允詩 1수, 高允;答宗欽 1수,(宋) 陶潛;酬丁柴桑 1수, 謝靈運;答謝諮議 1수, 北泉之;贈記室羊徽其屬疾在外 1수,(南齊) 虞羲樞;贈蕭諮議 1수, 贈何錄事諶之 1수,(梁) 武帝;贈逸人 1수, 簡文帝;和贈逸人應詔 1수, 沈約;贈沈錄事江水曹二大使 1수, 贈劉南郡季連 1수, 到洽;贈任昉 1수, 答秘書丞張率 1수, 吳均;重贈郭臨蒸 1수, 費昶;贈徐郎1수,(隋) 盧思道;仰贈特進陽卜之 1수.

권160, 詩20, 禮部2, 釋奠 下. 4言.

(南齊) 陸倕;皇太子釋奠 1수. 阮彥;皇太子釋奠會 1수, 王僧令;皇太子釋奠 1수, 袁浮北;皇太子釋奠詩 1수, 王思遠;皇太子釋奠 1수, 庾杲之;皇太子釋奠 1수,(梁) 武帝;侍齊皇太子釋奠會



1寸, 北希範;侍齊皇太子釋奠 1寸, 任昉;侍宴皇太子釋奠 1寸, 沈約;侍齊皇太子釋奠 1寸, 爲南乙齊郡王侍皇太子釋奠宴 1寸, 陸倕;釋奠應令 1寸, 何胤;皇太子釋奠 1寸, 蕭洽;侍釋奠會 1寸, 鮑幾;釋奠應詔爲王暉作 1寸, 陸雲公;釋奠應令 1寸, (隋)江總;釋奠應令 1寸, 王胄;在陳釋奠金石會應令 1寸。

권346, 頌16, 禮部5, 巡幸.

毛詩周頌時邁1장,(後漢)崔駰;東巡頌 1寸并序, 南巡頌 1寸并序, 西巡頌 1寸并序, 馬融;東巡頌 1寸并序, 劉珍;東巡頌 1寸并序, 高允;南巡頌 1寸,(宋)孝武帝;巡幸舊宮頌 1寸。

권347, 頌17, 征伐(?)1.

題目未詳의 殘篇 1寸, (東晉)曹毗;伐蜀頌 1寸, (後魏)高允;北伐頌 1寸。

권414, 七4.

(後漢)王粲;七釋 8寸, (魏)曹植;七啓 8寸并序, 傅巽;七誨 8寸。

권452, 碑32, 百官22, 將軍2.

(北齊)魏收;征南將軍和安碑銘 1寸并序, (隋)薛道衡;後周大將軍楊紹碑銘 1寸并序, 大將軍趙芬碑銘 1寸并序, 薛收;驃騎將軍王懷文碑銘 1寸并序。

권453, 碑33, 百官23, 將軍3.

虞南;左武侯將軍龐參碑序 1寸, 褚亮;左屯衛大將軍周孝範碑銘 1寸并序, 隋車騎將軍莊元始碑銘 1寸并序, 隋右統衛將軍上官政碑銘 1寸并序。

권457, 碑37, 百官27, 都督1.

(東晉)孫綽;江州都督庾冰碑銘 1寸并序, 張望;江州都督庾翼碑銘 1寸并序, 伏滔;徐州都督王坦之碑銘 1寸并序, (梁)孝元帝;潁州都督蕭子昭碑銘 1寸并序, (北齊)魏收;兗州都督胡延碑銘 1寸并序。

권459, 碑39, 百官29, 都督3.

(隋)李德林;秦州都督陸杏碑銘 1寸并序, 李西榮;洛州都督竇軌碑銘 1寸并序, 荊州都督劉贍碑銘 1寸并序, 夔州都督黃君漢碑銘 1寸并序。

권662, 詔32, 征伐.

太宗文皇帝;伐遼手詔 1寸, (漢)武帝;欲伐匈奴詔 1寸, 答淮南王諫伐越詔 1寸, (魏)文帝;諭伐吳詔 1寸, 常道鄉公;伐蜀詔 1寸, (西晉)武帝;伐吳詔1寸, 答杜預伐吳節度詔 1寸, (東晉)明帝;北討詔1寸, 成帝;北討詔 1寸, 安帝;征劉毅詔 1寸, (後魏)孝文帝;戒師詔 1寸, 出師詔 1寸, 節閔帝;伐爾朱文暢等詔 1寸, 孝靜帝;伐元神和等詔 1寸, (宋)順帝;西討詔 1寸, (南齊)明帝;北伐纂嚴詔 1寸, (梁)武帝;北伐詔 1寸, 又北伐詔 1寸, (北齊)文宣帝;征長安詔 1寸, 西伐詔 1寸,

(後周)武帝;伐北齊詔 2令

권664, 詔34, 撫邊.

(漢)文帝;與匈奴和親詔 1令, (魏)明帝;答東阿王論邊事詔 1令,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 1令, (隋)文帝;頒下突厥稱臣詔 1令, 安邊詔 1令, 揚帝;褒顯匈奴詔 1令, 武德年中鎮撫四夷詔 1令, 貞觀年中安撫嶺南詔 1令, 慰撫高昌文武詔 1令, 巡撫高昌詔 1令, 撫慰處月處密詔 1令, 撫慰百濟詔 1令, 撫慰新羅王詔 1令.

권665, 詔35, 赦宥.

(後漢)章帝;郊廟大赦詔 1令, 成帝;郊廟大赦詔 1令, (後魏)孝文帝;祭園丘大赦詔 1令, (宋)文帝;南廟大赦詔 1令, 親祠廟大赦詔 1令, (南齊)武帝;郊祀大赦詔 1令, 饗祭大赦詔 1令, 殷祭恩降詔 1令, (梁)武帝;新移南郊親祠赦詔 1令, 南郊恩降詔 1令, 南郊恩詔 1令, 冬至郊禋赦詔 1令, 禋饗恩降詔 2令, (北齊)孝昭帝;郊祀恩降詔 1令, (宋)文帝;拜陵赦詔 2令, 貞觀年中拜謁山陵赦詔 1令, (西晉)武帝;藉田大赦詔 1令, (宋)文帝;藉田大赦詔 1令, 孝武帝;躬耕千畝大赦詔 1令, 藉田大赦詔 1令, (南齊)武帝;藉田恩詔 1令, (梁)武帝;藉田恩詔 2令, 藉田勸農大赦詔 2令, (宋)孝武帝;明堂成大赦詔 1令, (後魏)孝文帝;遷都洛陽大赦詔 1令, (隋)揚帝;營東都大赦詔 1令.

권666, 詔36, 赦宥2.

(西晉)武帝;立皇后大赦詔 1令, (東晉)成帝;立皇后大赦詔 1令, 穆帝;立皇后大赦詔 1令, 孝武帝;立皇后大赦詔 1令, (後魏)孝靖帝;納皇后大赦詔 1令, (東晉)明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孝武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後魏)孝靜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宋)孝武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梁)武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重立皇太子大赦詔 1令, 立太子恩賚詔 1令, (後周)武帝;立皇太子大赦詔 1令, 貞觀年中立皇太子大赦詔 1令, (後周)明帝;誕皇太子恩降詔 1令, (後魏)孝莊帝;誕皇太子大赦詔 1令, (梁)武帝;誕皇太子恩降詔 1令, (東晉)元帝;誕皇孫大赦詔 1令, (後魏)孝文帝;誕皇孫大赦詔 1令, 貞觀年中誕皇孫恩降詔 1令, (東晉)成帝;加元服改元大赦詔 1令, (梁)武帝;皇太子冠赦詔 1令, (東晉)孝武帝;皇太子納妃班賜詔 1令, (梁)武帝;皇太子婚降大辟以下罪赦詔, (宋)孝武帝;講武原降詔 1令, 春蒐大赦詔 1令, 巡幸歷陽郡大赦詔 1令, 巡幸曲赦南徐州詔 1令, (南齊)武帝;幸青溪宮恩降詔 1令, (北齊)後主;幸大明宮大赦詔 1令, (陳)後主;幸長干寺大赦詔 1令, (隋)文帝;拜東岳大赦詔 1令, 揚帝;巡幸北岳大赦詔 1令, 幸江都赦江淮以南詔 1令, 武德年中幸通義宮曲赦京城內詔 1令, 靜觀年中幸國學曲恩詔 1令, 幸魏王泰宅曲赦詔 1令.

권667, 詔37, 赦宥.

(漢)宣帝;鳳皇集泰山赦詔 1令, (後漢)章帝;麟鳳等瑞改元赦詔 1令, (後魏)孝靜帝;膏兩大赦詔 1令, (宋)文帝;嘉禾秀京師赦詔 1令, (後周)明帝;靈鳥降大赦詔 1令, 靈鳥等瑞大赦詔 1令, 又

靈鳥等瑞大赦詔 1 令, (隋)文帝;獲寶龜大赦詔 1 令, 貞觀年中獲石瑞曲赦涼州詔 1 令, (漢)元帝;火災赦詔 1 令, (後漢)順帝;旱災大赦詔 1 令, (西晉)武帝;三辰謫見大赦詔 1 令, 惠帝;玄象失度大赦詔 1 令, 愍帝;地震大赦詔 1 令, (東晉)穆帝;日月薄蝕大赦詔 1 令, 海西公;災生大赦詔 1 令, 孝武帝;地震大赦詔 1 令, 靈震大赦詔 1 令, 大旱恩宥詔 1 令, 陰陽愆度大赦詔 1 令, 玄象告譴大赦詔 1 令, 安帝;玄象告譴大赦詔 1 令, (南齊)高帝;水旱乖度大赦詔 1 令, (後周)宣帝;水旱恩降詔 1 令, (陳)宣帝;辰象愆度大赦詔 1 令, 靜觀年中爲山東雨水大赦詔 1 令.

권668, 詔38, 赦宥4.

(漢)哀帝;改元大赦詔 1 令, (魏)文帝;改元大赦詔 1 令, (西晉)武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改元大赦詔 1 令, (東晉)元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改元大赦詔 1 令, 簡文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後魏)孝文帝;改元大赦詔 1 令, (宋)武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孝武帝;改元大赦詔 1 令, (南齊)高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廢帝;改元大赦詔 1 令, 海陵王;即位改元大赦詔 1 令, 明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改元大赦詔 1 令, 東昏侯;改元大赦詔 1 令, (梁)武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改元大赦詔 2 令, (北齊)廢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孝昭帝;即位 改元大赦詔 1 令, 武成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後周)明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陳)武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宣帝;改元大赦詔 1 令, (隋)文帝;登祚改元大赦詔 1 令, 改元大赦詔 1 令, 揚帝;即位改元大赦詔 1 令.

권669, 詔39, 赦宥5.

(東晉)安帝;平桓玄改元大赦詔 1 令, 平洛陽大赦詔 1 令, 平姚泓改元大赦詔 1 令, 平賊大赦詔 1 令, (後周)靜帝;平尉迥大赦詔 1 令, (隋)文帝;平陳大赦詔 1 令, 揚帝;平遼東大赦詔 1 令, 武德年中平蒲州城曲赦河東吏人詔 1 令, 平王充寶 德大赦詔 1 令, 平寶建德曲赦山東詔 1 令, 平輔公祐及新定律令大赦詔 1 令, 平北狄大赦詔 1 令, 貞觀年中平高昌曲赦高昌部內詔 1 令, (東晉)穆帝;誅路永等大赦詔 1 令, 安帝;誅司馬元顯大赦詔 1 令, (後魏)孝莊帝;殺爾朱榮元天穆等大赦詔 1 令, (宋)文帝;誅徐羨之傅亮謝晦大赦詔 1 令, 順帝;誅崔慧景大赦詔 1 令, (南齊)東昏侯;誅始安王遙光大赦詔 1 令, (後周)武帝;誅宇文護大赦詔 1 令.

권670, 詔40, 赦宥6.

(漢)武帝;赦詔 1 令, 元帝;大赦詔 1 令, (魏)高貴鄉公;大赦詔 1 令, (西晉)武帝;赦詔 1 令, (東晉)成帝;大赦詔 1 令, 康帝;大赦詔 1 令, 孝武帝;大赦詔 1 令, (後魏)文成帝;恩降詔 1 令, 孝文帝;大赦詔 1 令, (宋)文帝;大赦詔 1 令, 孝武帝;大赦詔 1 令, 原宥詔 1 令, (南齊)武帝;原逋負詔 1 令, 明帝;大赦詔 1 令, 原逋負及罷省詔 1 令, (梁)武帝;恩赦詔 3 令, 開恩詔 1 令, 降寬大詔 1 令, (北齊)文宣帝;大赦詔 2 令, 武成帝;大赦詔 1 令, 後主;大赦詔 1 令, (後周)武帝;大赦詔 1 令, 赦齊人被掠爲奴婢詔 1 令, (陳)武帝;宥沈泰家口詔 1 令, 文帝;免三道逆人家口詔 1 令, 大赦詔 2 令, 武德年中曲降十二軍界詔 1 令.

권691, 勅, 誠勵, 貢舉, 除授, 黜免.

誠勳一(漢)武帝;責楊僕勅 1 令, (西晉)武帝;戒州牧刺史勅 1 令, 誠牙門勅 1 令, 誠計吏勅 1 令, 誠郡國上計掾史還各告守相勅 1 令, (宋)文帝;與彭城王義康勅 1 令, (梁)武帝;與劉孝綽勅 1 令, 命百官聽采勅 1 令, (隋)文帝;答蜀王勅書 1 令, 貞觀年中與李玄明勅 1 令, 與于乾長勅 1 令, 貢舉一(北齊)武成帝;舉士勅 1 令, (隋)文帝;令山東三十四州刺史舉人勅 1 令, 除授一(北齊)武成帝;崔士順散騎侍郎勅 1 令, 命屢道遜兼正員迎陳使勅 1 令, 除潘子義持書襄謁之殿中侍御史勅 1 令, 除源那延持書房昭太守勅 1 令, 除奚瓊等太守勅 1 令, 除盧景開太守等勅 1 令, (北齊)後主;除崔孝緒等太守長史勅 1 令, 起復邢恕屯田郎勅 1 令, 除李遵等官勅 1 令, 除并州沙門統寺勅 1 令, 除僧慧肇冀州沙門都維那勅 1 令, 貞觀年中授杜如晦等別檢校官勅 1 令, 命房玄齡檢校禮部尚書勅 1 令, 黜免一(隋)文帝;解石孝義等官勅 1 令, 免常明官爵勅 1 令, 免馬仲任官爵勅 1 令.

권695, 令下, 移都, 毀廢, 祭祠, 崇學, 田農, 政事, 舉士, 賞罰, 軍令, 赦令, 雜令.

(梁)孝元帝;議移都令 1 令, (魏)曹植;毀鄧城古殿令 1 令, 武帝;春祀令 1 令, (梁)孝元帝;祀房廟令 1 令, (魏)武帝;修學令, 以鄭稱授太子經學令 1 令, (陳)後主;在東宮臨學聽講令 1 令, (魏)武帝;收田租令 1 令, (梁)孝元帝;勸農令 1 令, (魏)武帝;令掾屬等月旦各言過令 1 令, (梁)武帝;設榜達任令 1 令, 檢尚書衆曹昏朝滯事令 1 令, 除東昏制令 1 令, 高祖太武皇帝作相正文案令 1 令, (魏)武帝;舉士令 1 令, 論吏士行能令 1 令, 分租賜請將令 1 令, 曹植;賞罰令 1 令, (梁)孝元帝;策勳令 1 令, 封劉毅宗懷令 1 令, 射書雍州令 1 令, (魏)武帝;將軍敗抵罪令 1 令, (梁)孝元帝;與諸藩令 1 令, 責南軍令 1 令, (東晉)元帝;改元赦令 1 令, (梁)武帝;克定京邑赦令 1 令, 開國赦令 1 令, (魏)武帝;整齊風俗令 1 令, 曹植;自試令 1 令, (梁)武帝;集墳籍令 1 令, 斷華侈令 1 令, 掩體埋屍令 1 令, 葬戰亡者令 1 令, (梁)孝元帝;遣上封令 1 令.

권699, 教4, 恤亡, 褒賢, 顯節, 終復, 毀廢, 禱祀, 崇法.

(後漢)李固;恤奉高令喪事教 1 令, (宋)劉義季;藏枯骨教 1 令, 傅亮;爲宋公收葬荆雍二州文武教 1 令, (梁)簡文帝;祭北行戰亡將客教 1 令, 贈賻扈玄達教 1 令, 監護柱蒿喪教 1 令, 贍卹部曲喪柩教 1 令, 江淹;爲蕭驃騎築新亭壘埋枯骸教 1 令, 任昉;轉送亡軍士教 1 令, 沈約;祭徐崔文教 1 令, 贈留真人祖父教 1 令, 王僧孺;在縣祭杜西曹教 1 令, (東晉)庾亮;褒荊州主者王謙教 1 令, (梁)簡文帝;圖雍州賢能刺史教 1 令, 甄張景願復讎教 1 令, (東晉)王洽;修太伯廟教 1 令, (宋)傅亮;爲宋公修復前漢諸陵教 1 令, 爲宋公修楚元王墓教 1 令, 爲宋公修 良廟教 1 令, (梁)簡文帝;修理羊太傅蕭司徒碑教 1 令, (진)沈炯;爲王公修相國德政碑教 1 令, (東晉)庾亮;黜故江州刺史王敦像贊教 1 令, 劉瑾;廢袁真像教 1 令, (後漢)李固;祀胡母先生教 1 令, (梁)簡文帝;祠司徒安陸王教 1 令, 與僧正教 1 令, 蕭綸;無碍會教 1 令, 王筠;造立騰霄館教 1 令, 蕭子暉;爲武陵王府州上禮廵爲法會教 1 令, 簡文帝;三日賦詩教 1 令, (東晉)庾翼;北征教 1 令, (宋)孝武帝;試嚴教 1 令, 傅亮;爲宋公試嚴教 1 令, 范泰;爲大司馬作北征教 1 令, (梁)簡文帝;北略教 1 令, 江淹;爲蕭驃騎發西州三五教 1 令, 王筠;習戰備教 1 令.

其他 殘簡

題目과 作者 未詳의 勅 1편, 後梁 蕭伏의 讓侍中表 1수

### 3) 收錄 作品의 特徵

문관사림에 수록된 작품은 먼저 實用的 價値와 그 典範性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존본 중 시는 권152, 156, 167, 158, 160 등 다섯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앞 4권에는 贈答詩가, 뒤의 1권에는 釋奠詩가 수록되어 있다. 贈答詩는 부부 형제 친족 師友 등과 주고 받은 合目的의 作品類로서 구체적 생활 현장에서 흔히 활용되는 것이다. 釋奠詩는 공자묘에 제사를 드리는 釋奠大祭를 대상으로 하여 제사의 주체인 王孫의 훌륭함, 제사 광경의 웅장함, 여기서 상징되는 나라의 번영과 王業의 유구함 등을 읊은 작품군이다. 이런 작품들은 그것이 증답시이든 석전시이든 하나의 예술 작품이면서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활용 가능한 문필활동의 중요한 한 영역이며, 관료적 삶에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관사림에는 바로 이런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해 놓았으며, 이것을 제각기의 경우에 따라 부부간에 주고받은 작품류, 형제나 친족간에 주고받은 작품류, 師友간에 주고받은 작품류, 석전대제 행사를 두고 지은 작품류 등으로 정연하게 정리해서 제시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들 각양의 작품들을 참고해서 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두었던 것이다.

이 점은 碑文 詔文 같은 일반 문장을 검토해 볼 때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碑文은 이 책 권452, 453, 457, 459 등 4권에 수록되어 있고, 조문은 권662,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등 8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비문은 대상인물의 신분이 王孫貴族인가 一般官僚(百官)인가 하는 등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되었고, 일반관료라고 할 경우 다시 將軍인가 都督인가 하는 구체적 職官에 따라 하위분류를 더욱 세밀하게 했으며, 이와같은 세밀한 하위분류의 항목별로 관련 작품을 총괄해서 모아 두었다. 따라서 문관사림의 비문 부분을 검토할 경우 우리는 將軍의 碑文, 都督의 碑文 등 제각기의 身分과 職官에 걸맞는 다양한 비문의 예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정 신분과 직관에 해당하는 이의 비문을 쓸 경우 전범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詔文도 마찬가지다. 정벌을 하는데 사용한 征伐用 詔文, 변방을 慰撫하는데 사용한 邊撫詔文, 나라에 大赦免을 내릴 때 쓴 赦宥詔文 등으로 우선 크게 구분한 뒤, 다시 赦宥詔文의 경우 처럼, 郊廟와 園丘의 제사가 있을 때, 왕자와 왕손의 탄생이 있을 때, 태자를 세웠을 때, 임금이 특정 지역에 행차했을 때, 年號를 바꾸었을 때, 홍수와 가뭄 등 천재지변이 있을 때 등 전형적인 사례별로 모아둠으로써 그 실용성과 전범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문관사림에 수록된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민중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글이나 일반 문인

들의 순수한 문학작품 보다 나라의 統治理念을 具現하는 公用文書와 王公貴族 및 高位 官僚들의 官邊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와 문장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시 보다는 문장쪽에서 더 현저한 편이다. 예컨대 문관사림 권 160에는 釋奠詩 18수가 실려 있는데 이 중 13수는 황태자가 석전의식에 참례한 것을 작품화하여 왕조의 안녕과 번영을 노래한 것이고, 나머지 5수도 모두 임금의 명령에 따라 지은 應製詩들이다. 권152부터 158까지 4권에 걸쳐 수록한 일반 贈答詩는 비교적 내용이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이 역시 梁나라 昭明太子의 示徐州弟라든가 武帝의 贈逸人, 簡文帝의 贈逸人 應詔 등과 같은 왕공 귀족들의 작품을 적지않게 수록하였으며, 관리들이 그의 친족이나 다른 관료들의 새로운 赴任 轉勤 問安 등의 내용을 작품화한 것을 다수 수록해 놓았다. 沈約이 沈鍊使와 江水曹 두 사신에게 보낸 贈沈鍊使江水曹二使, 謝靈運이 中軍功曹란 벼슬로 서울에 부임한 從弟 弘元에게 보낸 贈從弟弘元爲中軍功曹住京, 孫綽이 晋나라의 許詢에게 보낸 答許詢, 陸機가 武昌太守 夏少明에게 보낸 贈武昌太守夏少明, 摯虞가 近군하는 李叔龍에게 보내준 贈李叔龍以尙書郎遷建平太守 등과 같은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들이며, 이런 작품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같은 사정은 頌 碑 詔 勅 令 教 등 여타의 문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다. 권346과 권347 두권에 걸쳐 수록한 頌12편은 詩經周頌 時邁1장부터 崔駰의 東巡頌, 南巡頌, 西巡頌, 北巡頌과 高允의 北伐頌에 이르기까지 모두 임금이 순행할 때의 장엄한 행차와 높은 덕, 征伐의 정당성과 늠름함 등을 칭송한 것인데, 최인의 南巡頌 같은 작품에서는 아예 서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頌을 지어 임금의 덕을 찬송한다”<sup>30)</sup>하고 명시해서 밝혀 놓기도 하였다. 권452, 453, 457, 459에 걸쳐 수록해 놓은 碑文 17篇은 北帝의 征南將軍 和安, 隋나라 後周大將軍 楊紹, 車騎將軍 莊元始, 東晋의 江州都督 庾氷, 徐州都督 王坦之, 隋나라 荊州都督 劉瞻 등 모두 특정 왕조와 국가에 훌륭한 공적을 남긴 장군과 고위 관료의 탁월한 행적을 비문 형식에 담아 놓은 것이다. 권662부터 권670까지 8권에 걸쳐 수록한 詔文 208수는 글을 쓴 주체가 바로 漢-魏-南北朝 및 隋나라 시대의 군왕들일 뿐만아니라 내용도 모두 주변국을 慰撫하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지은 것이며, 근본적으로 통치질서를 확립하고 나라의 기틀을 공고하게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 작품들이다. 즉 郊廟 園丘 饗祭 殷祭 등의 제사나 拜陵 刺田 등의 宮中儀式이 있을 때, 왕자의 탄생과 태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천자의 즉위 日食 月食 가뭄 홍수 등 길흉사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쟁의 승리 임금의 巡行 年號의 변경 같은 국가 대사가 있을 때 大赦免令을 내리면서 지은 詔文이나, 凶奴 高句麗 突厥 高昌國 百濟 新羅 등 인접 국가와 변방의 諸侯王을 慰撫하기 위해 지은 帝王의 公用詔文이 대부분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문체의 속성상 공식적

30) 文官詞林, 卷346, 頌16, 巡幸, 崔駰의 南巡頌并序  
“愚人作頌 以贊主德”

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문관사림이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實用的인 公用文과 官邊의 作品을 대단히 비중있게 수록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문관사림에 수록된 작품들은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단조롭고 典型的이다. 우선 시의 경우 현존하는 5권, 즉 詩部12에서 詩部20에 이르는 作品 전체가 4言詩로 되어 있는데, 選集 편찬의 일반적 관례상 4언시가 5언시나 7언시 보다 앞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존본을 포함한 시부 20까지 20권은 모두 4언시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관사림에서는 4언시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한 셈인데, 구체적 작품을 통해 이런 류의 작품의 특징을 검토해 보자.

微微髮膚	보잘것 없는 이 몸은
受之父母	부모에게 받은 것이고
峨峨王侯	높고 높은 왕후께서는
中外之首	천하의 首長이라네
子親伊姑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고모부이고
我父惟舅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외삼촌일세
昆同瓜瓞	형제는 瓜瓞처럼 뻗어 갈수록 훌륭하고
志齊執友	뜻은 좋은 벗 처럼 서로 같다네. <sup>31)</sup>

이 시는 潘岳이 그의 고종사촌 王弼에게 보낸 시 贈王弼 1首 중 第1章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체는 위와 같은 1章 4言 8句, 5章 40句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는 누가 읽어도 금방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하고 서술적이다. 전체가 4언시인데다가 微微 峨峨 같은 첩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되어 있고, 두 구가 하나의 작은 의미단락을 이루고 있으며, 詩經 大雅 綿篇의 綿綿瓜瓞의 의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체적인 가락과 표현이 시경 시의 기풍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西京伊何	장안은 이 어떠한가
實險實遐	실로 험준하고 실로 멀도다
右帶汾隴	오른쪽엔 汾水와 隴縣이 둘러 있고
東接二華	동쪽으로 태화산 소화산에 닿았네
我政旣平	우리네 정사 이미 평정되었고
我化惟嘉	우리네 교화 오직 아름답다네
肅之斯威	엄숙히 하셔서 이 위엄이 있고

31) 文官詞林, 卷152, 詩12, 人部9, 贈答1, 親屬贈答.

綬之斯和 편안케 하셔서 이 화기롭다네<sup>32)</sup>

이 시는 潘尼가 長安君 安仁에게 준 獻長安君安仁 1수 중 其6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체의 작품은 1章8句, 10章80句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 역시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4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實險實選처럼 한 구 안에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기도 하고, 두 구에 걸쳐 ‘我’ ‘之’ ‘斯’등을 반복하기도 하며, 두 구가 하나의 의미단락이 되도록 짝을 맞춰 놓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시 자연스러운 가락과 평이한 서술식 문투가 詩經詩風을 연상하게 한다. 물론 문관사림에 수록된 시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각 개별 작품에 따라 표현방식과 의미전개에 상당한 편차를 보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言詩體의 틀을 유지하였고, 평이한 서술식 문투에 기초하고 있으며, 첩어와 同語反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단조롭고도 자연스러운 가락을 유발시킴으로써 시경 시의 고전적인 감흥에 근접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음은 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은 七碑 詔勅 令教 등 특정 양식별로 일정한 서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수록된 작품이 위진남북조시대의 작품에 치중되어 있고, 국가의 공용문서로 활용된 詔勅 令教 등의 문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四六文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용문은 아니지만 官邊의 중요한 실용문의 일종인 碑文도, 대상 인물의 가계와 인적사항을 기술한 부분에 다소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4字句와 6字句가 우세했으며, 七體는 묻고 대답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深藏其身 高棲其志 外無所用 內無所事 顯若窮川之魚 梢若故木之枝<sup>33)</sup> 등처럼 짝을 맞춘 4자와 6자의 뗏구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따라서 문관사림에 수록된 문은 대체로 사륙문을 근간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각 양식별 서술방식을 온전하게 유지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4. 結 論

우리는 앞에서 문관사림의 편저자 허경중, 문관사림이 오늘날까지 전래되어 온 과정과 발굴 정리 작업의 현황, 책 전체의 규모와 일반적인 수록 내용, 現存本에 수록된 작품의 내역과 특징 등을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결과, 현재까지 그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문관사림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편저자 허경중은 당나라 高宗 때의 權臣으로서 문학적 재능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도덕적으로는 公益 보다 개인의 사사로운 탐욕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역사에서 평가되고 있었

32) 위의 책.

33) 文官詞林, 卷414, 七4, 王榮의 七釋8수 중 제1수.



다. 그리고 이 책은 허경종이 67세 되던 唐 高宗 顯慶3년(AD.658)에 허경종의 막강한 권력에 뒷받침되어 1000권의 鉅帙로 편찬되었는데, 이 1000권의 규모는 목판 약 2만5천 내지 3만면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그 전대까지 유일한 시문선집이었던 文選의 무려 3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관사림은 편찬된지 약 400년만인 송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편찬 주체의 부도덕성, 새로운 전문 시선집의 대량 출현 등을 포함한 현재로서도 여전히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이유들로 거의 대부분 상실되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선 문관사림의 책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일본의 西京 大覺寺와 淺草文庫 등에 약간의 殘簡이 전해져 왔는데, 1800년경 일본인 林衡이 제일 먼저 4권을 발굴하여 佚存叢書에 수록하였고, 1884년경 중국인 楊守敬이 18권을 더 발굴하여 古逸叢書에 편입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 董康이 다시 다수의 殘簡을 발굴함으로써 현재 약 23권 정도의 문관사림이 복원된 셈이다. 현존하는 문관사림에는 대략 詩 88題 97수, 頌 12題 12수, 七 3題 24수, 碑 17題 17수, 詔 197題 208수, 勅 30題 30수, 令 34題 35수, 教 37題 37수, 表 1題 1수 정도가 실려 있는데, 이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문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贈答詩 釋奠詩 碑 詔 勅 令 등 실용적 가치와 典範性이 강조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민중의 생활상을 반영한 글이나 일반 문인들의 순수한 문학작품보다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는 公用文書라든가 王公貴族 및 高位 官僚들의 官邊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시의 경우 전부 4언시체로서 평이한 서술식 문투, 첩어와 동어반복에 기초한 단조롭고 자연스러운 가락 등이 시경시의 고전적인 감흥에 접근하였으며, 文은 위진 남북조시대의 작품과 국가의 공용문서로 활용된 실용문이 다수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四六文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물론 이와같은 논의는 현재까지 발견된 23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며, 문관사림 1000권의 작품이 모두 이런 류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문관사림이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전범성이 강조된 작품, 국가의 각종 공용문서와 여기에 부합하는 관변의 작품, 고전적 감흥의 시경시체와 사륙문체의 작품을 가장 중요한 수집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이와같은 논지를 전제하고 볼 때 우리는 신문왕 6년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관사림 중 詞涉規戒 50권을 반입하였다는 기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詞涉規戒란 “문관사림의 많은 글(詞林) 중 특히 規戒의 영역에 들(涉) 만큼 중요하고 좋은 글, 즉 규범과 준거가 될만한 글”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문관사림의 각종 문체 중 현실정치에 가장 요긴하게 활용되는 전형적인 작품을 가려 뽑아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신문왕 6년에 반입된 문관사림은 주로 신라의 삼국통일 직후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는 공용문서의 확립과 보급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우리 한문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짚은 당시 신라의 사정을 살펴볼 때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즉 문관사림이 반입

된 신문왕6년(686)은 신라가 고구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고(668) 삼국을 통일한지 18년째 되던 해로써, 당나라와의 불편한 관계를 비로소 해소하고 문물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던 때이다. 이 책이 반입되기 바로 4년전인 신문왕 2년(682)에 國學을 설치하여 五經과 文選 史記 등을 교육함으로써 文士의 양성을 제도화 하였고, 왕의 近侍機構로 국가의 文翰을 전담하는 翰林臺 등의 관청을 설립하여 이런 글들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대폭 증대하였다. 문관사립은 바로 이와같은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반입된 것이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성격의 글을 통해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는 각종 글들에 대한 경험을 확충하고 다양화 하는 방향에서 국내 한문학계에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